



7일 첫방 앞둔 tvN 토일드라마 '미스터 선샤인'...김은숙 작가의 이전 작품들과 뭐가 다른가

1 역사·인간에 초점 2 차별화된 5인 캐릭터 3 190개국 공략

한번도 다뤄지지 않은 의병 소재 인물 5명이 풀어갈 5개의 스토리 넷플릭스 판매, 시장 파괴력 관심

김은숙 작가의 신작이라는 이유만으로 화제를 모으는 tvN 토일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이 7일 첫 방송한다. 앞서 '도깨비'와 '태양의 후예'를 집필해 신드롬을 일으킨 주역인 만큼 이번 신작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김은숙 작가가 강점을 보여온 로맨틱 코미디 장르와 거리가 먼 시대극이라는 점에서 그의 '도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스터 선샤인'이 이전 작품들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본다.

●로맨스보다 슬픈 역사와 인간애

'미스터 선샤인'은 신미양요(1871)를 주요 사건으로 1900년대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를 그린다.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일본이 강제로 체결한 을사늑약의 아픔,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비애와 인간애가 안방극장에서 펼쳐진다. 지금까지 한 번도 다뤄지지 않았던 의병을 통해 이야기한다. 이 같은 시대적 배경의 영향으로, 드라마는 로맨스도 엮인 남녀 이야기보다 당시 시대상에 집중한다. 노비와 백정의 자식이라서 겪는 고통스런

신분차별과 살기 위해 조국을 떠나는 비애와 아픔을 그린다. 이에 따라 주연 배우들은 다소 어두운 기운을 뿜는다. 다만 '자칭 박애주의자, 타칭 바람둥이'인 변요한의 캐릭터를 통해 김은숙 작가 특유의 사랑스러운 대사가 공개된다.

●쌍쌍 커플 넘어 '5대 캐릭터'

그동안 김은숙 작가의 작품에서는 남녀 배우 각각 2명씩 조명 받는 경우가 많았다. '도깨비'에서 공유·김고은, 이동욱·유인나가 이야기를 양분했으며, '태양의 후예'에서는 송중기·송혜교, 진구·김지원이 각각 이끌었다.

'미스터 선샤인'은 주요 인물을 1명 더 늘

려 더욱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이병헌·김태리·유연석·변요한·김민정이 그 주인공이다. 이병헌은 '격변의 시대', 김태리는 '낭만의 시대', 유연석은 '상실의 시대', 김민정은 '맹랑한 시대', 변요한은 '명량한 시대'를 각각 풀어간다. 각 캐릭터 분위기와 개성이 달라 5개의 유니버스로 구성되는 셈이다. 하지만 '파로 논다'는 인상보다는 각 인물이 빈틈없이 앙상블을 이룬다.

●넷플릭스로 190개국 공략..중국 한류는 미지수

'미스터 선샤인'은 미국 동영상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를 통해 190여 개국에서 공개된다. '한한령' 여파가 있는 중국은 제

외된다. 이로 인해 '태양의 후예'가 중국에서 일으켰던 신드롬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2016년 방영됐던 '태양의 후예'는 송중기와 송혜교가 엄청난 인기를 누리면서 꺼져가던 중국 한류의 불씨가 됐다. 하지만 사드 배치가 촉발시킨 한한령 이후 방영된 '도깨비'는 중국 내 인기를 체감하기 어려웠다.

'미스터 선샤인'이 중국을 품지 못하지만 할리우드에 진출한 이병헌이 존재한다는 점에 힘을 얻는다. 이병헌은 '터미네이터 제네시스' '지.아이.조2' 등 할리우드 영화에 출연하며 미주 지역에서는 얼굴이 알려져 있어 후광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감초’ 임관수 ‘친일파’ 이완익 ‘전당포’ 춘식

여기자들이 주목한 조연 3인방

인기 스타 옆에 특급 배우가 있다. 7일 방송을 시작하는 tvN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은 주연은 물론 조연까지 화려하다. 드라마는 물론 대작 영화에서도 이보다 화려한 출연진 구성을 찾기 어려울 정도다.

스포츠동아 여기자 3인이 '미스터 선샤인'을 채운 10여명의 주요 조연진을 살핀 뒤 각자 느낌대로 주목해야 할 3명의 배우를 꼽았다. 처음엔 주연 배우들에 시선을 빼앗길지 몰라도 끝내 드라마를 성공으로 이끌 뒷심은 이들 조연진에서 나올 거라는 데 한 표!

●이정연 기자...극의 활력소 조우진

시놉시스에 캐릭터 설명 한 줄을 찾아볼 수 없지만 직감이 왔다. "이 구역(드라마)의 감초는 조우진"이라는 사실을, '도깨



조우진

비'에서 빈틈없는 비서 캐릭터로 웃음을 줬다면 이번엔 대놓고 웃음을 만들어낸다. 그만큼 유쾌함으로 드라마를 이끈다. 이응복 PD가 먼저 다시 한번 그에게 손을 내민 것도 조우진의 진가를 알아서다. 미국 공사관의 통역관 임관수 역을 맡은 그는 재치와 뛰어난 두뇌플레이를 선보인다. 이병헌의 든든한 조력자로 나서는 그의 캐릭터는 분명 '도깨비'의 김비서를 뛰어넘으리라 장담한다.

●이해리 기자...악역 하면 김의성

이완익이라는 이름의 친일파를 김의성이 연기한다니, 어찌 기대를 안 할 수 있을까. 지금이야 다양한 역할로 대중과 만나지만, 오랫동안 연기활동을 중단했다가 돌아온 김의성을 다시 주목받게 만든 역할들은 대부분 악역이었다. 영화 '관상'의 한명회로 시작해 '암살'의 친일파 집사로 방점을 찍었다. 그가 하는 악역은 차원이 다르다. 섬뜩함이 TV 화면을



김의성

뚫고 나올 게 분명하다. 심지어 친일파를 논할 때 빠지지 않는 '누군가'를 연상케 하는 이완익이란 이름까지 얻었으니 벌써부터 긴장 유발이다.

●백솔미 기자...안방극장도 접수할 배정남

배정남의 안방 연기는 9년 만이다. 지금이야 '예능인' 이미지가 강하지만 2009년 '드림'에 격투기 선수로 출연했다. 이후 각종 영화에 참여하며 보낸 9년의 세월은 그를 영화계 재간둥이로 떠오르게 했다. 그 매력은 노비제 폐지로 추노꾼에서 전당포 운영자로 직업이 바뀐 춘식 역을 통해 공개된다. 그의 남다른 패션 센스는 볼 수 없지만 불쌍하게 보일 만큼 누추한 옷차림을 얼마만큼 소화할지 궁금해진다. 그는 2017년 영화 '보안관'에서 춘모 역을 맡았다. 이번엔 춘식이다. '춘'의 기운이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배정남

편집 | 안도영·김형조 기자

김은숙의 글을 100% 구현하는 이응복 PD

작가와 PD '환상의 콤비'

극본 김은숙, 연출 이응복의 콤비플레이는 tvN '미스터 선샤인'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2016년 '태양의 후예', 지난해 '도깨비'를 합작하면서 이룬 대대적인 성공과 그렇게 쌓은 노하우가 이번 '미스터 선샤인'으로 이어진다. 이응복 PD는 한국 엔터테인먼트를 움직이는 김은숙 작가가 믿는 최상의 파트너로 통한다. KBS에 몸담으면서 드라마 '드림하이' 등을 연출했지만, 그의 몸값이 급상승한 결정적 작품은 김은숙 작가와 처음 작업한 '태양의 후예'다.

김은숙 작가와 이응복 PD의 만남은 이보다 완벽할 수 없는 '원원' 효과를 낳는다. 김은숙 작가가 자신의 장기인 로맨틱코미디에서 한 발 나아가 전쟁의 스펙터클을 담아낸 '태양의 후예'에 도전해 성공을 거둘 수 있던, 주요한 배경은 연출을 맡은 이응복 PD의 존재다. 실제로 김은숙 작가는 전공인 로맨티코



김은숙 작가

미디어 결이 다른 이야기를 집필하면서 자신의 '글'이 어떤 '그림'으로 완성될지 의구심을 가졌다. 이런 불안함을 완전히 털어낼 수 있게 해준 사람이 바로 이응복 PD다. 방송가에서는 두 사람을 두고 "서로가 가장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파트너"라고 평가한다.

김은숙 작가는 한 명의 연출자와 오랫동안 작업하는 방식으로 유명하다. 이름을 알린 2004년 '파리의 연인'부터 2012년 '신사의 품격'까지 무려 6편을 신우철 PD와 함께 했다. 작가로 또 다른 세계를 펼쳐면서 이제는 이응복 PD와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방송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응복 PD는 누구보다 꼼꼼하고 세심한 성격의 소유자. 지금껏 김은숙 작가와 만든 3편의 드라마가 규모는 물론 컴퓨터그래픽 작업의 부담도 상당했지만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챙기면서 제작진의 신뢰를 얻고 있다.

'미스터 선샤인' 제작 관계자는 "'태양의 후예'와 '도깨비'를 뛰어넘는 스케일을 연출하는 데 있어 이응복 PD를 적임자라고 판단했고, 김은숙 작가의 글을 100% 구현하는 실력자라는데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